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| 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
http: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전력산업과 박성택 과장(2110-4897), 이재홍 사무관(4898)

# 전력수급 동향

□ 금일(12.6일) 서울 최저기온이 -10℃까지 하락하는 등 강추위로 전력수급상황 악화

○ 오전 9시 45분경 예비력이 450만kW까지 하락하여 준비단계 돌입

○ 민간 자가발전 56만kW, 주간예고 187만kW 등 243만kW 수요관리와 함께 10시23분~11시52분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전압 하향조정 95만kW 시행

- 금일 오후 2시 현재 예비력 400~500만kW 수준 유지

**< 12.6일(木) 시간대별 수급상황 >**

| 시간 | | 9~10시 | 10~11시 | 11~12시 |
|---|---|---|---|---|
| 공급능력 | | 7,629 | 7,629 | 7,629 |
| 전력수요(수요관리前) | | 7,361 | 7,461 | 7,453 |
| 수요관리前 예비력 | | 268 | 168 | 176 |
| 조치사항 | 민간 자가발전 | 56 | 56 | 56 |
| | 주간예고 | 180 | 187 | 181 |
| | 전압조정 (1시간 평균) | - | 45 (10시 23분 시작) | 95 (11시 52분 종료) |
| 최종 예비력(1시간 평균) | | 504 | 456 | 508 |

○ 금일 17~19시 오후 피크시간대 수요관리前 예비력은 279만kW 수준으로 전망되나 150만kW 수요관리 및 추가 필요시 전압조정을 통해 450만kW를 유지할 계획

* 민간 공급능력(17:00~18:30 40만kW)
* 주간예고 (17:00~17:30 85만kW, 17:30~18:00 116만kW, 18:00~18:30분 110만kW)

□ 다음주까지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, 예방정비중이던 울진 6호기 발전재개로 수요관리前 예비력은 343만kW~483만kW 수준 전망

**< 12월 1~2주 수급 현황 >** (만kW, 수요관리前)

| | 12.7일(금) | 12.10일(월) | 12.11(화) | 12.12(수) |
|---|---|---|---|---|
| 공급 능력 | 7,699 | 7,783 | 7,783 | 7,783 |
| 최대 수요 | 7,280 | 7,440 | 7,350 | 7,300 |
| 예비력 | 419 | 343 | 433 | 483 |
| 기온(서울) | -7 / 0 | -9 / -2 | -8 / 0 | -6 / 2 |

* 12.6일 9시 예측치

□ 지경부 조석 차관은 "금년 12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낮고, 예년보다 일찍 한파가 시작되어 12월내내 전력 비상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"하면서,

○ "오늘 오전에는 예비력을 400만kW 이상 유지하여 준비단계에 머물렀으나 200만kW 이상의 수요관리 조치 이후 결과로, 수요관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168만kW까지 하락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음"

○ "당분간 겨울철에는 오전 10~12시에 불요불급한 전기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범국민 절전 참여노력이 절실"하다고 강조




❖ 겨울철 피크시간인 09시 ~ 11시30분까지 집중적인 절전운동 전개 필요